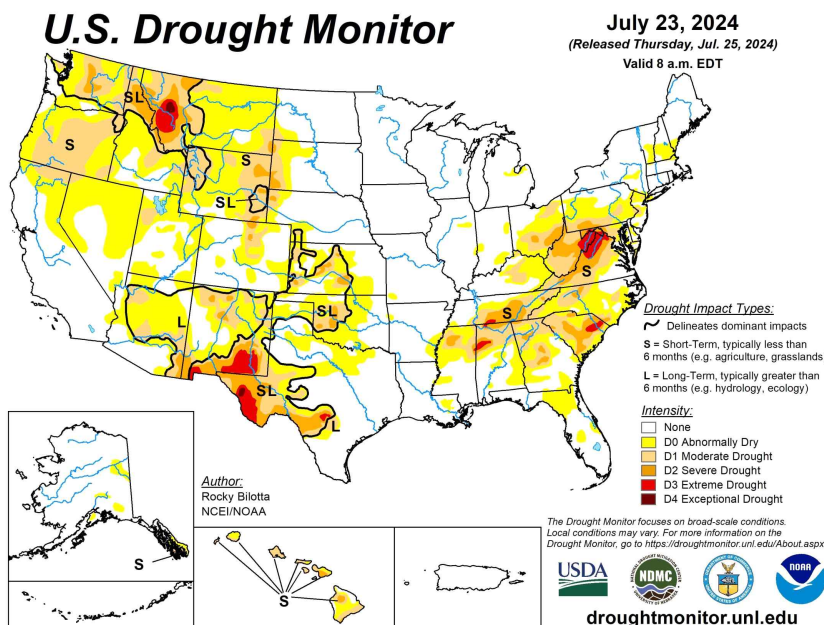




7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31)

□ 미국 기후 현황(7/21-7/27)

남동부의 가뭄이 악화되었던 것만큼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폭우가 목초지와 미성숙 여름작물들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그 비가 너무 늦어서 옥수수처럼 일부 조기 성숙하는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대서양 중부의 주들의 일부에 내린 비의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농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량이 내린 남부의 비가 서부 걸프 연안 지역까지 확대되어 국지적인 홍수가 일어났다. 더 북쪽으로 갈수록 중서부 대부분에서 비교적 선선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어서 생식기 내지 종실 비대기 여름작물들에게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평원에서도 지배적이었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쌓여가는 열기로 인해서 적당한 토양 수분이 부족한 지역의 작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 대분지, 인터마운틴 웨스트, 남서부에서 군데군데 몬순 순환과 관련된 소나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에서는 여전히 수십 건의 산불이 활동하고 있었다. 가장 크고 빠르게 번지는 산불 가운데 일부가, 특히 뜨겁고 건조하며 바람이 부는 조건에서 정제되고 진한 연료에 불이 붙은 곳에서, 기후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몬태나, 노스다코타 그리고 대분지 대부분은 물론이고,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대조적으로 남부 평원과 서부 걸프 연안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값이 평년보다 5° F 낮았다. 북부 고원을 가로질러 연중 가장 더운 날씨가 되었지만 중서부의 주요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지역의 기온이 다시 스트레스 수준 (95° F 미만)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7/22-7/28)

남부의 대부분은 대분지, 중서부, 북동부, 로키산맥 그리고 남서부 일부를 따라 평년 수준 대비 최소 두 배의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텍사스 동부의 몇 지점들에서는 8인치 이상의 비가 기록되었다. 한편 애리조나 대부분, 대분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북부 평원 그리고 로키 산맥 북부는 해당 주간 동안 평년보다 더 따뜻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일부는 평년보다 8°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동부 대부분, 태평양 북서부, 중앙 및 남부 평원 그리고 로키산맥 남부는 평년보다 시원했다. 미시시피 계곡 하류 일부와 남부 평원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7/21-7/27)

■ 유럽:

유럽 남동부에서는 최근에 지속된 더위가 가라앉았고 한편 대륙의 중부와 북부 일부를 가로질러 소나기가 계속되었다. 헝가리와 다뉴브 강 계곡의 주요 여름작물 지역에 매우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 (2-75 mm)가 내려서 최근의 폭염을 끝냈다. 그러나 최근의 극한 기온으로 인해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가 서둘러 종실비대기를 지나 성숙기를 향하여 가고 있어서 수확량 손실은 거의 돌이킬 수 없다. 그리스의 건조하고 매우 더운 날씨 (38-40° C)가 면화를 재촉하여 정상보다 2주 이상 일찍, 열린 꼬투리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게 했고 아주 높은 관개 수요를 유지했다. 서쪽으로 더 가면 타는 듯한 더위가 스페인에서 확대되고 강해졌다; 카스티야 이 레온의 주요 옥수수 지역에서는 기온이 35-40° C에 도달했고 한편 스페인 중부와 남부에서는 40-44° C의 고온이 해바라기, 벼, 면화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한편, 유럽 중부와 북부 대부분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가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 여름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프랑스 중부에서부터 독일 북서부까지 내린 주간 총 강수량은 50 mm를 넘어갔다. 유럽 남동부에서는 여름작물의 수확량이 급락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서부의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에 대한 전망이 양호 내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구소련(서부):

절실히 필요했던 소나기가 내리면서 보다 시원한 공기가 도착하면서 최근의 폭염이 가라앉았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은 평년의 2° C 이내였고 낮 최고 기온은 6월 말 이후 처음으로 35° C를 크게 밑돌았다. 기온이 더 시원해졌으나 남부와 서부의 여름작물들은 7월의 폭염으로 인해 서둘러 종실비대기를 지나고 있었고 수확량 손실은 대체로 돌이킬 수 없었다. 러시아 남부에서는 아주 가변적인 비 (3-111 mm)가, 국지적인 폭우와 뇌우로 인한 수분의 대부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바짝 마른 표토 위를 그냥 흘러 가버린 것으로 보였지만, 국지적인 가뭄을 완화해주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북중부의 주요 옥수수 지역은 지난 90일 동안 아주 건조한 상태에 있었고 (국지적으로 평년의 50 퍼센트 미만) 이번 주에 내린 가벼운 소나기 (2-10 mm)는 발달하고 있는 가뭄에 대한 우려를 거의 완화해주지 못했다. 서부 경작지역의 조건은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몰도바 북부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내린 25-70 mm의 비가 종실비대 중인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전망을 개선해주었다. 적시에 비가 내렸고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더위를 대체로 피했던 러시아의 중부와 불가 지방의 대부분에서는 봄 곡물과 여름작물에 대한 전망이 마찬가지로 양호했다.



■ 동아시아:

계절 초 중국 남부에 광범위한 홍수를 일으켰던 범람이 북쪽 구역을 침수시켰고 최근에 동쪽으로 이동하여 황해 북쪽 부분과 접하고 있는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둥 동부의 일부에서는 하루에 150 mm가 넘는 양이 기록되었고 랴오닝, 지린, 북한 북부의 주간 총 강우량은 200 mm를 넘었다. 중국 동부에 있는 거의 모든 여름작물 지역들에서, 북동부의 옥수수과 대두부터 남부의 벼까지, 다양한 심각도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피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홍수가 났던 장강 계곡은, 화북 평원까지, 이번 보고 기간 동안 날씨가 더 건조하여 과도한 습기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주초의 더위 (최대 40° C의 기온)로 인해 작물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주 중반에는 더 시원한 날씨와 계절에 맞는 소나기가 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밖에 남동부에서는 태풍 ‘개미’의 잔재로 인해 100 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중국 서쪽 끝에서는 주말의 더위가 계속되면서 (30° C를 넘는 일평균 기온) 여전히 개화 중이던 면화에 스트레스를 일으켰다.

■ 호주:

빅토리아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 전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지만, 밀지대 대부분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해서 내렸다. 그 비가 영양기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에게 더욱 유익을 주었고, 한편 더 건조한 곳들에서는 맑은 하늘과 정상에 가까운 토양 수분이 겨울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서호주, 남호주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의 주요 겨울작물 생산 지역에서는 10-25 mm의 강우량은 흔했다. 밀지대의 남쪽 경계 부분은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높았고 북쪽은 거의 평년에 가까웠으며 최고 기온은 섭씨 10도 후반과 20도 초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대체로 건조하고,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마지막 단계에 이른 여름작물의 수확과 겨울 곡물의 파종을 지원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5 mm를 초과하여 비가 내린 농경지는 거의 없었다. 지난주의 한파와 대조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건조함을 동반하였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으며 결빙은 전통적으로 더 추운 남부 농경지로 국한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밀과 보리가 각각 97 및 96 퍼센트 파종되었다; 한편 옥수수와 면화는 둘 다 92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남부 생산 지역에서는 최근의 유익한 강우 기간 이후로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밀의 성장을 촉진했다. 마투그로수두술에서부터 남쪽으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6° 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보다 서늘한 남부 지점들에서의 섭씨 20도 중반에서부터 더 북쪽의 30도 초반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야간 최저 기온은 남쪽 대부분에서 10° C 이상으로 유지되었고 결빙은 보고되지 않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기작 옥수수수는 7월 22일 현재 76 퍼센트 수확되었고 한편 밀은 50 퍼센트 이상 개화기에 도달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7월 25일 현재 밀이 5년 평균 96 퍼센트 대비 94 퍼센트 과종되었다. 한편 계절적으로 따뜻하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초중반에 도달) 건조한 날씨가 더 북쪽에 있는 옥수수와 면화의 수확을 지원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 수확은 거의 완료되어 99 퍼센트였고 한편 면화는 평균 33 퍼센트 대비 24 퍼센트 수확되었다.